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1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그 사랑을 일평생 마음 깊이 품고 사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 비틀거리며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많은 눈이 내려 전국이 하얗게 변하고 사람들은 종종걸음을 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아직 거리 곳곳에 쌓여있는 두꺼운 눈덩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사회 위에 무겁게 쌓여있는 탐욕과 이기주의를 은총의 햇살로 녹여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소통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무거운 기운을 말끔히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눅2:30-32 .....	인도자
♠ 교 독 문 .....	121. 주현절(1)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고정환 학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5(통512). 내 주 되신 주를 .....	다함께
성경봉독 .....	I. 미6:6-8 .....	최다미 학생
	II. 눅9:10-17 .....	서정순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	손성현전도사
	II. 풀밭 위의 식사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찬 송 ..... 427(통512). 맘 가난한 사람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공허함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방치된 공허함은 탐욕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나누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빈들같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 없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작은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눔’이 ‘채움’되는 기적을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동호회	별난 복음, 요한복음 1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민주 선생	김창주 학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하정석 집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최현옥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에덴의 기억

우리는 종종 인류문명의 찬란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기독교인은 잃어버린 과거의 어느 때를 찾아 돌아가야 할 존재인가요? 미래의 어느 때를 예감하며 오늘을 사는 존재인가요?

가축을 사육한 것이 인류역사상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Jared Diamond).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길들인다는 것, 기른다는 것 그것은 곧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노예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히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겨우 15만년에서 20만년 동안에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 180만년에 걸쳐 지구상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直立猿人)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연장을 만들고 불을 이용할 줄 알던 호모 사피엔스. 숲에 불을 지르고, 네 것 내 것을 가르는 율타리를 돌려치고, 무리를 지어 계급을 만든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그 현생인류의 끝자락쯤에 속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연장과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보다 크고 힘센 짐승을 살해하고 잡아먹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냥감 짐승이 푸푸 거친 숨소리를 내며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원찮은 연장 때문에 설죽은 짐승에게서 뜨거운 피가 쿨렁거리며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죽이고 피를 경험하더니 어느 날 다른 동물 죽이듯 사람도 살해했습니다. 먹이를 독점하기 위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부족 간에 서로를 살해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번 살해해보니 그 다음에는 처음보다 훨씬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연장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자연을 정복하고 30년에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의 호모 에렉투스의 삶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피할 수 없는 일로 죽음을 너머는 걱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를 체온으로 따스하게 해주던 삶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아담이라면 호모 에렉투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동산에서 살던 기억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200만년 된 사람이 있는데 만일 그 200만년 된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지면 자기 자신과의 뿌리를 잃는 것이라 합니다(Carl Jung). 뿌리 없이 이대로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유전인자(Gene)를 통해 우리에게 이어져 온 호모 에렉투스의 기억과 삶을 되살려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라지는 동. 식물의 종(種)들은 지구상에 지금의 그 모습으로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의 날수로는 닷새, 지구의 날수로는 몇 십 만년 몇 백 만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0만년 된 현생인류에 의해 해마다 수많은 종(種)들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금 지구의 나이를 1년으로 친다면 겨우 19분 30초 전에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유장한 창조역사가 19분 30초짜리 생명에 의해 훼손되고 다른 피조물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훼손하고 능멸하면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우스꽝스런 신앙놀음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몇 번에 걸친 연재를 통해 교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땅과 물과 공기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지 못할 형편입니다.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결국 재앙적 기후변화를 가져옵니다. 인류가 자랑하는 기계문명도 화석연료의 고갈로 곧 마지막 언덕을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보존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달은 청파교회는 평화와 녹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

# 새해 새 아침은

신동엽

새해 /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 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 눈부신 태양  
새해엔 /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 씻겨갔으면

새해엔 / 아내랑 꼬마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 돌아와 봤으면

허나 / 새해 새 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영원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빛 속에서 / 구슬짓는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근종 정옥영 임고은 조관행 홍선희 정한구 왕영순 조현권 전세종  
김정민 김혜영 이성운 권채영 조항범 오현정

### 월정헌금:

김문주 이광섭 박상규 류건형 이주은 안길상 이형숙

### 감사헌금:

김중수 이순정 한훈식 박홍재 박규석 임승동 백혜숙 최윤희 김기석  
김희우 광상준 최경미 김필순 이인웅 박옥식 이혜수 강미선 한상익  
정영선 김남종 오복순 이우원 옥귀희 안종일 정현주 김재흥 최희영  
권혁신 조병무 허호범 박성실 이나단 윤정덕 구성실 이재문 김종락  
박영신 정복순 오재환 양재성 임미심 박병구 김정애 김성한 조영순  
최종훈 김금하 문복순 전성오 오정숙 문금석 김명순 김성환 권미숙  
이우엘 김준우 우순덕 장재영 김재영 전세종 김정민 장영숙 김인걸  
문영혜 무명6

### 녹색꿈 헌금:

윤석철 장혜숙 최경미

### 생일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서원금 김기석 홍지희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쉽	쉽
베들레헬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훈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주현절** :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2. **의무헌금봉헌** : 오늘 예배 중에 금년도에 봉헌할 헌금을 작성하여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영화동호회는 환경다큐멘터리, 로컬푸드에 대한 영상을 봅니다.
4. **초록가게** : 청파초록가게에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임새가 줄어든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구역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구역회가 열립니다.
6. **수요집회** : 1월 수요집회에서 '별난 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김재흥 목사가 인도합니다.
7. **신앙실천** : 환경부에서 나누어드린 '청파환경수칙'을 실천해나가십시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다음 주 : 고린도 속 )

\* 설거지 봉사 : 이성범 이국노 김민화 (다음 주 : 정희은 이정현 박권동)

### 새교우 소개

나승철 (3남)

정연희 (6여)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